

## SK C&C 합격 후기

SK C&C 합격 수기를 작성하기 앞서, 여기까지 도움을 주신 서화정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SK C&C와 여태까지 지원하고 합격했던 기업들에 대해 전반적인 후기를 말씀드리며, 각 기업별로 보안서약서를 작성함에 따라 그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말씀드림을 알려드립니다.

1) 한국연구재단(체험형 인턴): 2019년 상반기 취직을 도전함에 있어 가장 먼저 최종 합격을 한 공기업입니다. 체험형 인턴이라 5개월 근무 후 계약 종료라서 가지는 않았지만, 해당 기업에서 면접은 어떻게 보는 것인가에 대해 연습하고 배울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한국연구재단에서의 면접은 체험형이라 그런지 직무에 대한 질문보다는 인성에 대한 질문이 주로 이루어졌으며, 다대다 면접으로 심사위원 6분(직급별로 추정) 지원자 6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질문 난이도는 평이했으며 인상 깊은 질문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중 고쳐야할 항목에 대해 말해보라는 질문으로 한국연구재단에 대한 관심을 말해보라는 의미로 추정됩니다.

한국연구재단의 면접이 배울 수 있었던 자리라고 말한 이유는 면접 종료 후 가장 직급이 높아 보이시는 분이 한명 한명에 대해 면접 자세에 대한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해당 피드백은 면접 때 흔히 할 수 있는 실수와 어떻게 하면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로 각 6명에게 해준 말씀이 모두 유익하였습니다.

2) 현대카드(전환형 인턴): 현대카드는 앞으로 정규직을 뽑지 않고 인턴을 채용하여 괜찮은 인재를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을 한다고 발표하여, 지원 당시 정규직 TO 자체가 없었습니다.

현대카드는 서류, 인적성, 코딩테스트까지 통과하고 면접을 앞두고 있었지만, SK에 최종 합격하여 면접은 가지 않았습니다.

현대카드는 SW 직군에 대해 세부 직군을 나누지 않고 SE(Software Engineer)라 하여 전체적으로 채용합니다. 따라서 서류에 작성하는 자기소개서에는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이 얼마나 전문적으로 알고있는지 표현하는 바가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인적성 시험의 경우 현대 그룹의 HMAT을 실시합니다. HMAT에는 언어, 추리, 수리, 공간 해서 총 4개의 영역이 나와 있습니다. 저의 경우 언어, 추리, 수리는 각 5문제 정도 못 풀었으며 기업마다 풀은 문제가 틀릴 경우 감점이 있기 때문에 전혀 모르겠는 문제는 공란으로 제출하고 둘 중 하나일 경우 찍었습니다.

공간 문제는 다른 문제들보다 조금 타고나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사위를 굴려서 나오는 모습을 유추하는 문제인데 시험지를 돌리면 안 되고 시험지에 표시를 해도 안 됩니다. 오로지 머릿속으로만 풀어야합니다. 스터디를 했을 때 경험으로는 잘 못 푸시는 분들은 반도 못 풀었으나, 저는 별다른 스킬이 있는건 아니었고 그냥 보면 답이 보여서.. 전체 문제를 풀고 다시 한 번 풀어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이로 인해 인적성을 통과한게 아닐까 추측 중입니다.

코딩테스트는 총 2문제가 나왔으며, 첫 번째는 자료구조를 이용한 문제, 두 번째는 문자열 문제로 난이도는 중하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알고리즘 문제를 풀어보셨다면 평이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라인(전환형 인턴): 라인의 경우 별다른 서류 통과 없이 관련 학과를 나오면 코딩 테스트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저는 이때 알고리즘 공부를 전혀 하지 않고 바로 도전을 했었을 때라.. 코딩테스트에서 탈락(5문제 중 2문제 풀었고, 3문제 풀면 합격이라고 들었습니다.)했습니다.

돌이켜보니 알고리즘 공부를 한 3주만 했더라도 통과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라인 문제는 중상 정도의 난이도로 평가합니다.

4) SK C&C(정규직, 최종합격): 최종 합격한 SK의 경우 자소서를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모르겠다 할 때 SK를 먼저 작성해 놓고 다른 기업을 변형하는 편이 좋습니다. SK가 자소서 단계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구구절절 쓰다보면 하나의 완벽한 자소서가 나오게 되고, 다른 기업에 적용하기 좋습니다.

SK의 코딩테스트는 2018년 상반기부터 시작되어 이번이 3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3문제가 나왔으며 난이도는 중 정도로 평가합니다. 일반적인 알고리즘 공부를 했다면 평이하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면접의 경우 보안서약서가 너무 철저하여.. 자소서 그리고 지원한 분야의 기초 CS를 공부하고 가시면 좋을 듯 합니다.

취업 준비에 대해 막막한 사람을 위한

취업 준비를 시작한지 약 2달 정도만에 SK에 최종합격 하였습니다. 학부 당시 친했던 대기업 간 선배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팁을 얻었고 그에 맞게 실행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소개서는 우선 많이 써봐야 합니다. 그러나 혼자 쓰고 고치는 것은 의미 없습니다. 교내 취업지원팀에 가면 자소서 첨삭을 무료로 해줍니다. 취업지원팀을 귀찮게 만드는 것이 자소서 합격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고리즘 문제의 경우 문자열, 자료구조, 알고리즘(DP, DFS, BFS) 이렇게 3가지 군으로 나눠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삼성의 경우 자료구조 + 알고리즘으로 2문제가 나오고 1문제를 완벽하게 풀면 합격합니다. 나머지 기업들은 어렵게 나오면 삼성과 같이 아닐 경우 문자열 문제를 포함하여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백준, SWEA를 이용하여 문제별로 계속 풀어보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많이 풀면 풀수록 감이 잡히고 그 감이 잡히면 자신감이 생겨 알고리즘 시험을 본다면 환호를 외치게 됩니다. 그리고 괜찮은 사람들과 스터디를 꾸려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적으로 1주에 2-3번 만나 4시간 정도 문제를 풀고 서로가 어떻게 풀었는지 공유하면 실력 향상에 크게 도움 됩니다.

참고: [https://github.com/kyu-h/SWEA\\_BJ](https://github.com/kyu-h/SWEA_BJ) // 문제별로 정리해놨습니다. README 참고

면접은 무조건 스터디를 잡아야합니다. 대신 면접스터디와 알고리즘 스터디 모두 어중이떠중이들과 하면 안 됩니다(자신이 어중이떠중이가 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 예로 면접 스터디를 만들어서 갔는데 면접 준비는 하나도 안 해오고 와서 잡담만 늘어놓는 그룹이 있어서 바로 저는 나와서 다른 그룹에 참여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그룹에 속하지 않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나면 면접 경험(ex, 현대 1차 면접까지 해봤습니다, 삼성 최종에서 떨어졌어요 등)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팀을 꾸리면 됩니다.

만약 면접 경험이 한 번도 없다면, 지인 찬스를 쓰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는 학부에서 친한 친구가 현재 SK C&C 재직 중에 있어, 그 친구를 이용해 스터디를 꾸렸었습니다. 친구가 면접 스터디에 한번 참여하여 전체적으로 모의 면접을 진행해준다고 했었고 실제로 면접 스터디 할 때 친구가 와서 도와줬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 중 원하시면 모의 면접을 진행하는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대신 제가 봐드릴 땐 정말 열심히 준비하신 후 연락하셔야합니다. 단순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알려주세요 등은 받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듣는 것보다 본인이 인터넷에 찾고 스스로 노력해야 늘지 백날 들어도 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소서, 코딩테스트, 면접 모두 학원 같은 것들은 다니지 않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스스로 해야 하는 것들이지 어차피 가봐야 뻔한 얘기합니다. 모두 건승하시고 열심히 연구하여 원하는바 이루시길 바랍니다.

IT융합공학부 안규황